2021년 7월 개원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173호 (음력 5월 22일) 2021년 7월 1일 목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신안 반월·박지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국내 후보 선정

10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서 최종 확정

박우량 군수 "섬바다 생태환경·문화적 특성 살릴 것"

신안군은 '보랏빛 섬(purple island)'으로 세계적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반월·박지도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 World Tourism Organization, 이하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 출품을 위한 대한민국 후보마을에 선정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세계관광기구는 오는 8월과 9월 '제1회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2021 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관광공사는 7월7일부터 10일까지 후보마을인 반월·박지도에 대한 현장실사와 컨설팅을 진행한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1925년의 국제관광연맹(IUOTO)을 개편해 1975년에 설립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다.

본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총 155개 회원국과 6개 준회원국, 400여개 지부(민간단체·교육기관·관광협회·지역관광기관 등)가 가입돼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관광의 진흥과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홍보, 관광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을 인증해주는 사업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관광기구가 인증하는 최우수 관광마을 대한민국 후보마을로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난개발의 길이 아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섬마다 지닌 생태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살려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을 만들고 있는 5만 군민과 신안군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 출품을 위한 대한민국 후보마을로 신안군 반월·박지도와 제주도 하효마을, 전북 고창 고인돌마을 등 총 세 곳을 선정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광주 북구, 상온 방치 화이자백신 1000여명분 폐기

광주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관리 직원의 실수로 화이자 코로나19 예방 백신 1000여명분이 14시간 가량 상온에 장기 방치돼 전량 폐기한다.

6월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건소 백신 담당 직원이 상온 해동 중인 화이자 백신을 제때 냉장고에 넣지 않았다.

직원은 접종 예정분에 해당하는 화이자 백신 172바이알(vial·주사용 유리용기)을 냉동고에서 꺼내 이동형 선반으로 옮겨 해동 중이었다.

직원은 보관 장비 사용일지와 온도 기록지를 작성하다 깜빡 잊고, 규정상 해동 시간 30분을 넘긴 뒤에도 냉장고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온에 방치된 지 14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8시께 관련 사실을 파악한 보건소는 질병관리청 백신유통관리팀에 사고 경위를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백신은 사용할 수 없다. 대체할 백신 물량을 다시 배정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직원, 냉동고→냉장고 옮기다 깜빡해 밤새 방치
질병관리청 "사용 불가능, 대체 백신 물량 배정 예정"
이번주 접종 차질 없을 듯…광주시 "관리지침 재정비"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 당 6명이 접종 가능한 만큼, 폐기 물량은 1000여명 분으로 추산된다. 다만 현재 접종센터 내 보관 백신으로 이번주 접종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백신 관련 사고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화이자 백신 보관 온도 이탈 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백신 관리 지침을 재정비해 현장 관리자가 정확히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 또 백신담당자 2인 체계 운영을 확대하고 일일 체크리스트 확인·보고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이자 백신은 냉동 보관하다가 상온에서는 30분 내에 접종해야 한다. 냉장 보관은 최장 5일까지 가능하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농기원, 흑염소 고기 산업화 나섰다

축산업 신성장 동력 5개년 대책 수립

전남농업기술원이 흑염소 고기 산업화를 추진한다.

6월 30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흑염소를 전남 축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용 스마트 축사 구축, 고품질 브랜드화 등 20개 과제를 골자로 한 흑염소 산업화 연구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흑염소 고기의 소비 형태가 약용에서 육용으로 빠르게 변하면서 사육 규모가 산업화 단계로 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R&D)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의 흑염소를 신품종 육종부터 식품 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전남 브랜드로 개발해 새 농촌경제 소득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연구과제는 그동안 흑염소 농가의 오랜 숙원사업과 산·학·연 흑염소 전문가들이 제시한 6개 분야 20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연구 예산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10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부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3년 간 국비 47억원을 확보했다.

연구수행을 위해 흑염소 전용 스마트축사 신축, 우량 종축 신계통 육종, 인공수정·수정란이식 기술 고도화, 정밀 사양기술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또 전용 사료개발 및 질환개선 사료첨가제 개발, 유통체계 개선 분야 이력제 및 신선육 부위별 등급기준 설정 연구, 고령·유아 맞춤형 메디푸드 개발 등도 지원한다.

농업기술원은 흑염소 생산액이 올해 273억원에서 5년 후 600억원으로, 소득은 1억원 이상 농가가 50호에서 200호로, 사육 규모는 12만6000마리에서 27만마리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전남은 기온이 따뜻하고 산지가 많아 흑염소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 축산기반 및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좋다"며 "코로나19 시대 국민의 건강 치유 식품으로 각광받는 흑염소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